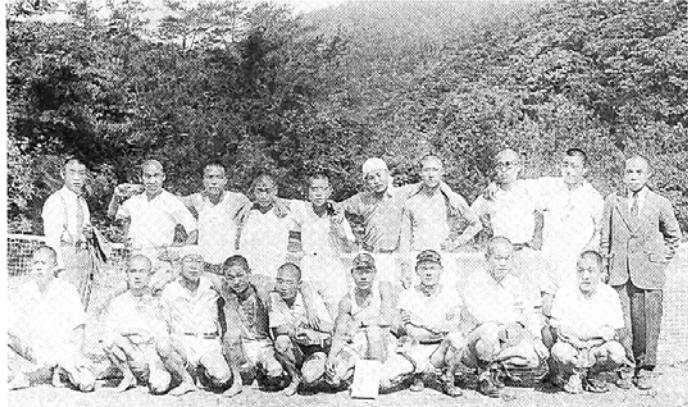


큰스님 수행한담

삼독 녹여야 '불자의 삶'



1941년 철원 심원사에서 학인시절 5월달에 체육대회를 갖고 기념촬영했다. 앞 아있는 앞줄 오른쪽부터 월하스님, 네번째가 법공스님,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이 김사스님.

됩니다. 물에 뜬 거품과 같은 망상이 금생의 삶뿐만 아니라 내생까지도 바꾸어 놓습니다. 사실, 세상은 업에 따라 존재하고 사람 또한 업에 따라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업에 속박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업이 바로 금생과 내생의 삶을 되풀이하게 하는 윤회의 씨앗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업을 짓는 자이면서 동시에 업을 받는 자이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들은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라든가 "이게 다 너의 업이니 달게 받아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쌓이고 쌓인 업을 녹이고자 3아승지겁을 닦으신분 아닙니까. 단박에 성불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생을 자리아타(自利利他)를 실천하세요. 그리고 경을 착실하게 보십시오. 불경은 중생의 고통을 녹여주고 고쳐놓은 가치를 벗어나게 하며 어리석음과 미망을 깨뜨려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수지독송하고 익히는 까닭은 경전 속의 선지(善智)를 발견하고 실천하여 그 경전의 큰 뜻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자신이 독송하는 경전의 내용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전을 수지독송하기에

"경전 수지독송하고 읽는 까닭은 禪법 발견하고 따르기 위함이니 부처님 직접뵈고 가르침 들듯하세요"

닫는 일입니다. 경전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부처님을 직접 뵈고 가르침을 듣는 마음가짐으로 읽어야 합니다. 읽을 때 한 글자 한 글자의 뜻을 음미하고 이해하면 서 또박또박 읽어내려가는 거지요. 경전 서 삼보 가운데 법보에 해당하는 귀중하고 성스러운 것입니다. 경전마다 교화의 대상으로 문수보살을 비롯한 제자등 수많은 대중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바로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경전을 읽을 때는 부처님께서 수보리 아난다등 제자에게 설하고 계신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읽어야 한다는 뜻이요, 이렇게 경전을 읽을 때 몸과 눈과 입과 귀와 코로 숨을 쉬면서 읽어야 하니 뜻과 법문이 일체가 되어 비로소 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경자 해안통루(看經者 慧眼通流)라 하지않습니까. 경전을 보는 사람은 지혜의 눈이 크게 열린다는 뜻이지요. 경을 바른 마음으로 보면 참심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스스로

아니지요. 이미 본래부터 거울이 가지고 있던 기능을 드러내게 했을 뿐입니다. 불자의 수행도 삶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모든 것을 비출 수 있는 거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즉 본성은 완성된 부처님의 성품 즉 자성(自性)입니다. 이미 우리는 모두 훌륭한 불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거울에 때가 끼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자성(自性)이 탐 진 치의 삼독심으로 잔뜩 때를 입혀놓고 말았습니 다. 거울에 낀 먼지를 닦아내듯 우리 자성을 가리고 있는 삼독심을 열심히 녹이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때의 마음은 오직 간절함 뿐이어야 성과를 봅니다.

그리고 수행하면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허망한 물질에 불과한 상대적인 가치 체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옳고 옳은 행위 뒤에는 상대성이 있다면 말입니다. 좋다는 것은 나쁘다는 것보다 비교적 좋다는 뜻이나 우수한 것은 저열한 것에 비해서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은 밖에서 찾으면 먼 우회로를 도느라 무척 힘이들뿐만 아니라 어떤 금생에서는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자유롭다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을 찾는다면 남보다 더 권력을 잡으려고 또 돈을 많이 가지려고 연연합니다. 돈이 많다고도 하루 네끼를 먹는 것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진짜 순금과 같은 우리 불성을 돌아볼 줄 모릅니다. 결국 죽을때 가서는 잘못살았다는 것을 깨닫지만 어디 사람됨받기가 쉬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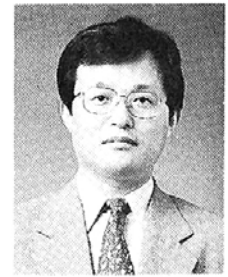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이 내 이력에 비추어 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말합니다. 사실 법주사 백양사 등 숭한 강원에서 학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가르쳤다는 것은 내가 경을 통해 보고 배운 부처님 말씀을 전했음을 말합니다. 내가 가르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두 다 부처님 가르치심인 것이지요.

정리: 위영란 기자

나의 경전



여래장경



조수동 · 경신대학교 · 동양철학

불교의 궁극 목표는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는 데 있다. 우리들이 모두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수 있다면 그런 한 원리는 무엇인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연기설을 가르치셨고, 그것은 무상 무아 또는 공의 이론으로 표현되지 않는가? 일체의 존재와 현상이 모두 무상 무아이고 공이라면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해탈의 주체는 과연 무엇인가?

나 또한 이러한 의문 속에 영남대 재학시절 불교학회를 처음으로 만들어 본격적인 불교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내가 법우들과 함께 공부했던 경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래장경>이었다. 해탈의 주체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최초의 경전인 <여래장경>은 이후 내 학업에 까지 영향을 미쳐 여래장 사상을 주제로 석 박사 과정을 마쳤다.

<여래장경>의 원전은 현재 남아있지

는 관념은 바로 여래장 사상의 근거가 된다. 또한 경에서는 이러한 여래장은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한 후 하지않은 일체 중생의 마음중에 항상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에 있어 일체중생은 번뇌에 덮혀있으므로 이 번뇌를 제거하고 여래장을 나타내게 하기위해서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하여 많은 중생들을 위하여 설법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처님의 일체중생에 대한 자비성의 발로이다.

경에서는 이어서 여래장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위해서 9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 9가지 비유는 첫째 시들은 연꽃속에 있는 여래 화신의 비유, 둘째 많은 벌들에 둘러싸여있는 청정한 꿀, 셋째 곡식의 껍질에 둘러싸여있는 곡물의 씨앗, 넷째 부정한 곳에 떨어져 있는 진흙, 다섯째 가난한 집의 땅속에 묻혀있는 진보장, 여섯째

일체중생 구제하는 자비정신 강조

"번뇌에 덮인 중생도 해탈할 수 있다"

않다. 경록(經錄)에 따르면 이 경은 기원후 291년에서 771년 사이에 네차례 한역되었던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당 불공 역의 <대방광여래장경>과 동진의 불타발타라 역의 <대방광여래장경>이 있고, 불타발타라의 <대방광여래장경>을 많이 읽고 있다. 여래장이라는 말은 인도어 tathagatagarbha로 '그 안에 여래를 감추고 있는 것' 또는 '여래의 태아를 갖는 것'이라는 의미인데, 여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또한 그것은 불성(佛性)과 동의어이다.

<여래장경>의 근본취지는 "내가 부처의 눈으로 일체 중생을 관찰하니 탐진의 여러 번뇌중에 여래의 지혜와 여래의 눈과 여래의 몸이 있어 결과부좌하여 얽연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선남자야, 일체 중생은 비록 여러 가지 윤회의 세계에 있지만, 번뇌의 몸 중에 여래장이 있어 항상 오염됨이 없이 덕상(德相)을 갖추어서 나와 닮은 것이다"라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일체중생이 여러 번뇌에 덮혀 있지만 중생에게는 여래와 같은 지혜, 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중생은 본래 여래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여래와 동일한 지혜, 마음, 눈이 있다

알라 열매 속의 씨앗, 일곱째 더러운 물건속에 감추어진 금상, 여덟째 빈천한 여인이 회한한 고귀한 아들, 아홉째 주렁 주렁 속의 진금상이다. 이들 아홉가지 비유가 나타내는 것은 외형은 비록 쓸모없고 더럽게 오염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고귀하고 진실한 것이 있고 그 속에 이 중생의 마음도 여러 가지 번뇌속에 덮혀있지만 오염됨이 없는 진실하고 부동한 여래의 마음과 같은 심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여래장경>은 적은 분량의 경전으로 단지 성불의 가능성을 중생의 마음속에서 찾을뿐, 더 나아가 여래장 그 자체의 성질과 여래장과 번뇌와의 관계 등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이 미친 사상적 영향은 매우 크다. 이 경을 출발점으로 하여 여래장 사상은 <부중불감경> <승만경> <보살론> <대방광여래장> <대승기신론> 등으로 발전하여 여래장 사상의 체계화를 이루게 된다. <여래장경>은 우리들 중생심안에 우리가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 즉 해탈의 심성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극대화하고,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는 붓다의 자비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경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業은 윤회의 씨앗... 집착하면 못 벗어나 불자의 목표 '성불'... 보살행 실천하세요

을 지배하며 집착하고 있는 업은 우리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은 전생업의 총보요 금생업의 일체종자라고 합니다. 조사님들은 내 마음이 움직이면 바로 업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모든 것을 그리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시 집착하여 벗어나지 못하고 얽매게 됩니다. 업장은 어머니 뱃속에 틀기 이전부터 지니고 내려왔던 근본무명과 그로 인해 일어나는 마음짓거리입니다. 이 업이 바로 깨달음에 이르는 장애물입니다. 그렇다면 업을 녹이는 것이 불자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그것은 부처님과 같이 불성불멸의 진리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 불자의 궁극의 목표이니까요. 우선 가장 확실하게 도달하게 하는 것은 보살행을 닦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보세요.

알서 경전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경전에 대한 바른 이해는 중생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 잡아주고 불자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어디 있는지를 확실하게 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중에 마음에서 산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큰 기쁨과 자유, 그리고 감사함을 느끼면 됩니다. 그리고 경전을 볼 때는 속마음이 이미 고요하고 바깥 경계를 버려야 바야흐로 경전의 깊은 뜻과 하나가 되어 진리를 규명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물이 맑으면 빛이 어리고 구름이 흩어지면 달이 밝게 빛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럴때 경전의 바다와 같은 뜻이 가슴에 울쑥 울쑥하고 산과 같은 지혜가 열리는 것이지요. 경전을 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삼학인 계 정 해 3학을

비추어보고 마음을 항상 반조해 보며 살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불자들은 부처님이 신장님들이 조사님들이 깨닫게 해주 고 복도주고 바른길로 이끌어 주는 줄 아는데 그것은 잊힌 생각입니다. 깨치기를 기다리면 그 기다리는 마음이 업(業)이 되어서 절대로 깨칠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은 불교가 아니구요. 항상 자신을 되풀이 하고 어리석게 살아왔으면 지혜롭게 살려고 정진하고 티가 묻었으면 닦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밝고 깨끗한 자신의 모습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거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울에 먼지가 덮여 있으면 나를 비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먼지를 쓸어내면 내 모습이 나타 납니다. 내가 거울의 먼지를 닦아 냈다고 해서 거울의 반사력을 새로 만드는 것은

대한불교해동종

사단법인 대한불교 해동 자비원

종 정 석 봉

- 원로원장 인현
총회의장 성타
사정원장 선기
포교원장 대원
복지봉사원장 성용
연수원장 백당
문화예술원장 원표
총무원장 송산
부원장 법성
총무부장 경신
교무부장 진응
사회부장 혜월
사정부장 상오
사서실장 보성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리 393-1
전화: 0331)262-1577 · 263-1353
FAX: 0331)262-1577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예천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연락주시는 대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내용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고통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4.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5.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적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6. 특별 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7.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9.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0. 특별 천도제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 (0342)706-3060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 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풀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재
· 팔괘: 고급 나무 목판 판각형
· 만다라: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45cm x 45cm

◎ 보급가: ₩ 300,000 →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성지관음회 (회장 예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소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빗마다 쏟아졌던 동전들을 모두 걸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이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라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